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 SCRIPTORY

로마서 6 주차 (롬 2:4~2:12)  
(2017년 2월 5일 - 2017년 2월 11일)  
(제5권 6호)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제 5 권-제 6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7 년 2 월 5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http://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Jeonghan Lee (얼바인 온누리교회 집사)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일)

## 오늘의 본문 (롬2:4)

- 4 또는 풍성함을 (ἡ τοῦ πλούτου)  
 그의 인자하심의 (τῆς χρηστότητος αὐτοῦ)  
 [그의] 용납하심의 (καὶ τῆς ἀνοχῆς)  
 [그의] 오래참으심의 (καὶ τῆς μακροθυμίας)  
 당신이 가볍게 생각하느냐 (κατακρονεῖς)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ἀγνοῶν ὅτι τὸ χρηστὸν τοῦ θεοῦ εἰς μετάνοιάν σε ἄγει)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 바울은 3절에 이어 두 번째 질문을 던진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한 질문이다.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편지는 소위 미전도 종족이나 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교회 내에서 서로를 향해 자신의 신앙관이 더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 세 가지 풍성함을 보이신다는 점을 강조한다. 첫째는 우리에게 무한한 인자를 베풀셨고, 둘째는 용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셨으며, 마지막으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끝까지 참으시고 계신다고 말한다. ‘인자’의 헬라어 원어는 ‘크레스토테스’(χρηστότης)다. 우리 말로는 ‘어질다’라는 뜻이지만 헬라 문화에서 이 단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자격없는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다. 인자하심은 단순히 선하심, 너그러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을 도와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까지 아우르는 말이다. ‘크레스토테스’(인자)라는 말은 단지 하나님의 너그러운 성품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에 구원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죄없음을 선언받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 존재의 실질적 변화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씀을 전도하는 목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골1:28-29).

그리스도안에서 완전한 자란 어떤 의미인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뜻한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란 단순히 죄를 짓지 않을 정도의 도덕성을 갖추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앞에서 말한 그 인자하심(크레스토테스)에 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 게다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유보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남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 옛언약을 대체할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3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33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34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렘 31:31~34).

언약을 깨뜨리고 각자 제 갈 길로 간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신다. 하나님의 법을 구원받은 성도 안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억지로 뭔가를 행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법이라는 것이다. 우리 안에 두고 기록하실 하나님의 그 법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를 기꺼이 다른 이들에게 흘려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정죄의 칼날을 거두어 들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다.

우리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래서 자신과 생각이 같지 않거나 삶의 방식이 다른 상대방을 향해 서비난과 정죄의 칼날을 들이대기 십상이다. 옛 언약이 바로 그렇다. 모세의 율법은 인간들끼리 옳고 그름을 따지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구분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가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세리의 옳지 못한 행동도,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명백한 불법도, 문둥병자와 혈루병 걸린 여인의 부정함도 모두 용납하실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모습인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며 인간들이 만든 선악 판단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타인을 향해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며 서로 으르렁거린다. 진정한 온전함이란 내 안에 있는 선악 기준으로 나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해대던 것을 그만 두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잣대는 오직 선악 판단의 기준들을 얼마나 하나님께 돌려 드리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자신과 타인들을 향하던 비판과 정죄의 칼날을 거두어 들고 있는가?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주위 사람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마음 속으로 그들을 정죄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 은혜를 더 깊이 알수록 당신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 하나님의 인사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 (월요일)

## 오늘의 본문 (롬2:4)

4 또는 풍성함을 (ἡ τοῦ πλούτου)

그의 인자하심의 (τῆς χρηστότητος αὐτοῦ)

[그의] 용납하심의 (καὶ τῆς ἀνοχῆς)

[그의] 오래 참으심의 (καὶ τῆς μακροθυμίας)

당신들이 가볍게 생각하느냐 (κατακρονεῖς)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ἀγνοῶν ὅτι τὸ χρηστὸν τοῦ θεοῦ εἰς μετάνοιάν σε ἄγει·)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도 바울이 제기하는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너희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인자, 용납,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아 본 일차 독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인자는 넘치도록 풍성했고 그분의 용납하심은 끝이 없을 정도로 무한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물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되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신다. 그 모든 것을 경험했고 또 잘 알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면 그들의 신앙관은 분명 지금과는 달라야 했고 그에 따라 그들의 세계관도 변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아마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단지 지식이나 이론으로만 받아들인 것 같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한다. “당신들이 가볍게 생각하느냐(카타프로네이스, κατακρονεῖς)?” 이 단어는 어떤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만한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인간들이 그것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이 결국에는 복음을 낳았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들을 묶고 있던 모든 속박을 풀어 주셨다. 율법에 묶여 율법의 노예 노릇을 하던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다. 뿐만 아니라 양심의 율법으로 늘 정죄감에 젖어 살던 이방인들도 그 정죄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로마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안겨 주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복음의 완전성에서 떠나 또 다시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바울은 지금 이런 로마 교회를 향해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다.

바울의 질문을 알기 쉽게 풀어쓰면 이렇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이리도 쉽게 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있지 않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복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건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복음의 가치는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르다. 사람마다 복음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은 각자가 지닌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노래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너무도 많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으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신앙조차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데 교묘히 이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된지 오래다. 세상 가치관을 그대로 지닌 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여전히 세상적 가치가 가치롭고, 세상이 옳고 선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내게도 소중하다면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가버이 여기는 것이다. 사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정죄와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기쁜 소식이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의 자리까지 끌고 가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법적 용어로 공소권 없음을 선언하셨다. 그 대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죄에 대해 이미 사형이라는 벌을 내렸으니 당연히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들에게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주신 것이다. 하지만 인간들은 이러한 복음의 가치를 이내 잃어버린다. 정말 자신이 그러한 대가를 치렀다면 어찌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본인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그 아들의 희생을 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너무도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의 부활도 남의 일 보듯 여긴다. 그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이 만들어 낸 엄청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 낸 그 복음은 나를 향한 정죄의 칼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의 칼날도 거두어 들이게 만든다. 더군다나 복음은 우리 안에 있던 정죄의 수단인 선악 판단 기준도 무력화했다. 우리가 타인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회수해 간 그 선악 판단 기준을 여전히 붙들고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비난 받을까 봐 두려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황급히 자리를 뜬 베드로를 심하게 나무랐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sup>6</sup>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sup>7</sup>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sup>8</sup>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sup>9</sup>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갈 2:16-19).

바울은 말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범법하게 만든 때문이라는 것이다. 율법과 선악 판단 기준을 사용하여 타인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가버이 여기는 사람들은 이미 그 자신이 하나님이나 다름없다. 당신은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그럴 만한 자격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여한 적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후에 다른 이들을 향해 선악의 잣대를 들이대 비판하고 정죄한 적이 없습니까? 바울의 경고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 선악 판단 기준을 가진 사람들의 운명 (화요일)

### 오늘의 본문 (롬2:6~8)

- 6 그는(하나님은)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ὅς ἀποδώσει)  
각 사람에게 (ἐκάστῳ)  
그의 일을 따라 (κατὰ τὰ ἔργα αὐτοῦ)
- 7 사람들에게 (τοῖς)  
~하시는 한편 (μὲν)  
선한 일을 인내로 (καθ' ὑπομονὴν ἔργου ἀγαθοῦ)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찾는 (δόξαν καὶ τιμὴν καὶ ἀφθαρσίαν ζητοῦσιν ζωὴν αἰώνιον,)
- 8 그러나 사람들에게 (τοῖς δὲ)  
사적 욕망으로 (ἐξ ἐπιθείας)  
진리에 불복종하는 (καὶ ἀπειθοῦσιν τῇ ἀληθείᾳ)  
불의와 진노와 분노에 설득당한 (πειθομένοις δὲ τῇ ἀδικίᾳ)  
진노와 분노로 (ὀργῇ καὶ θυμῷ)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인간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지 않기로 작정한 그것을 인간들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든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으로 대체하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의와 거룩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나마 유대인들끼리만 그랬다면 이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저 유대인들만의 관습이라고 치부하면 그만이니 말이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받아서 지켜왔던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도 강요했다. 그들 생각으로는 할례도 받지 않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으며, 절기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몸을 더럽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피해야 하고 정결하지 않은 음식들을 가려 먹어야 한다고 여겼다. 그런 그들의 눈엔 아무 음식이나 먹고 정해진 날과 절기들을 지키지도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해하는 사람들로 보였다. 그렇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다가 자기들에게까지 그 율법을 강요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인간들이 가진 선악 기준은 늘 상대적일 뿐이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우상의 제물로 쓰인 게 아닌가 못미더워 매일 채소만 먹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렇게 율법에 얽매어 사느냐며 그들을 비난하며 믿음 없는 자로 정죄하는 것도 잘못이요, 반대로 아무 음식이나 가리지 않고 먹는다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없는 자로 정죄하는 것도 잘못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먹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문제, 할례 문제 등으로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반대로 이방인 성도들도 같은 문제로 유대인 성도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각자의 소신에 따라 행할 일이며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문제이지 인간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문제

는 아닌 것이다.

인간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가 판단한 대로 행한다. 그렇기에 어떤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게 보이기도 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 스스로 선하고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영원한 가치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들을 비판하거나 경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율법을 단 하나도 적용하지 않으셨다는 점이다. 오직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전가받아 뒤집어 쓰시고 그에게만 하나님이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셨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극형에 처해졌다. 왜 그분이 그런 가혹한 형벌을 받으셔야 했을까? 바로 우리 각자의 죄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용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지 못할 때 완성된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들은 여전히 각자가 가진 선악 기준을 놓지 못하고 그대로 지니고 있다. 게다가 그 기준은 지금도 우리 자신을 괴롭힐 뿐 아니라 타인들도 괴롭히고 있다. 선악 기준이 나를 향할 때 나는 스스로 정한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다가 그 기준에 미달하기라도 하면 곧바로 수치심을 느끼고 심지어 죄의식을 느끼기까지 한다. 그렇게 되면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가 되고 당연히 하나님과의 친밀도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하나님은 인자와 용서와 오래참음이 풍부하신 분이 아니라 늘 회초리를 들고 있는 무시무시한 분으로만 느껴지니 어찌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 누구나 살다보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그 때마다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며 늘 자기 죄를 들추어내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고자 무던히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대단히 엄격하다. 이들의 눈에는 다른 이들이 조금이라도 자기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진다. 교회에서 일은 하지 않고 그저 예배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힘들어진다. 도덕적으로 사소한 문제만 보여도 곧장 훈계하고 가르친다.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각 사람에게 그들이 한 일에 따라 되돌려 주시겠다는 것이다. 혹시 당신은 마음에 들지 않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찌면 당신은 그 율법으로 인해 스스로나 타인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다. 자기와 다른 이들에 대해 선불리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같은 태도가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데 지름길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당신은 그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 진리에 불복종 하는 사람들 (수요일)

### 오늘의 본문 (롬2:6~8)

- 6 그는(하나님은)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ὅς ἀποδώσει)  
각 사람에게 (ἐκάστῳ)  
그의 일을 따라 (κατὰ τὰ ἔργα αὐτοῦ)
- 7 사람들에게 (τοῖς)  
~하시는 한편 (μὲν)  
선한 일을 인내로 (καθ' ὑπομονὴν ἔργου ἀγαθοῦ)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을 찾는 (δόξαν καὶ τιμὴν καὶ ἀφθαρσίαν ζητοῦσιν ζωὴν αἰώνιον.)
- 8 그러나 사람들에게 (τοῖς δὲ)  
사적 욕망으로 (ἐξ ἐπιθείας)  
진리에 불복종 하는 (καὶ ἀπειθοῦσιν τῇ ἀληθείᾳ)  
불의에 설득당한 (πειθομένοις δὲ τῇ ἀδικίᾳ)  
진노와 분노로 (ὀργῇ καὶ θυμῷ.)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한다. 바로 진리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불의에 설득당한 사람들이다. 진리란 흔히 인간들이 생각하는 ‘참된 이치’가 아니다. 하늘의 것이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이 땅에 내려 온 것이 진리다. 따라서 진리는 인간들의 사상이나 이론들에 의해 가공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역사상 하늘의 존재가 전혀 왜곡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와 인간들과 함께 한 예는 오직 한 분 뿐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진리에 불복종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예수님이 만들어놓은 길을 인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 길은 단 하나 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은 그의에 매달리는 것뿐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고별사를 꺼내신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겐 가히 충격적이었다. 깊은 충격과 고민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sup>2</sup>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sup>3</sup>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sup>4</sup>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요14:1~4).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안이 빙빙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아버지 집은 어디이며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한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게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제자들이 알고 있다고 하신다. 제자들은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바로 그때 회의적이며 현실주의자였던 도마가 나섰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목적지도 모르는 판에 어떻게 길을 알 수 있겠냐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은 하늘의 로고스로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던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의 속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알레테이아’ (ἀλήθεια), 곧 ‘진리’라 말씀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진리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분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 말하고 있다. 진리에 불복종하는 사람들은 사적인 욕망으로 인해 불의에 설득당한 사람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죄를 밥먹듯이 저지르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을 떠올릴 지도 모른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도 이 부류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도덕 강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을 겪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 이 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적 욕망에 의해 불의에 설득당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독자들인 로마 교회 교인들이다. 그들의 사적 욕망이란 그들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켜내려고 하는 가치이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자존감 같은 것이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해주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유대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할례는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의식이다. 때마다 찾아오는 절기도 그렇고 철저하게 절제된 삶의 방식도 그러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이행함으로써 스스로 의로움과 경건함을 보여주려고 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의를 입증하려 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사람이 결합된 합성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만 설명되어지는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란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담보된다. 그것이 진리에 복종한다는 말의 의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대체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사적 욕망으로 불의에 설득당한 사람들이라 했다. 교회의 문제는 도덕적인 죄가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포기하고 자신의 의를 쌓으려는 데 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떠난 자들이다. 겉으로 보기에 그런 의가 근사하고 자랑할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배설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타인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가? 만약 그런 생각으로 다른 이들의 잘못을 속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사적 욕망으로 불의에 설득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그 의는 당신의 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 환란과 어려움(목요일)

### 오늘의 본문 (롬2:9~11)

<sup>9</sup> 환란과 어려움이 (θλίψις καὶ στενοχωρία)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ἐπὶ πᾶσαν ψυχὴν ἀνθρώπου τοῦ κατεργαζομένου τὸ κακόν,)

첫째는 유대인의 그리고 헬라인의 (Ἰουδαίου τε πρώτον καὶ Ἕλληνας·)

<sup>10</sup> 그러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δόξα δὲ καὶ τιμὴ καὶ εἰρήνη)

선을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παντὶ τῷ ἐργαζομένῳ τὸ ἀγαθόν,)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Ἰουδαίῳ τε πρώτον καὶ Ἕλλησι·)

<sup>11</sup>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οὐ γὰρ ἔστιν προσωποληψία παρὰ τῷ θεῷ.)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첫째는 유대인의 그리고 헬라인의, 영혼에 환란과 어려움이!” 사도 바울은 악을 행하는 이들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말로 경고하고 있다. 우선 하나님이 정하신 악이 인간사회에서 규정한 악과 같은 의미일까? 성경에서 악을 행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그 악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타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가장 많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배타성’이다. 예수님께 의존하는 것 외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기독교의 주장은 다른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배타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양성을 중시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독교는 이런 배타성 때문에 외부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고 점점 더 코너로 몰리게 되었다. 갈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자 결국 기독교는 구원의 유일성을 주장하여 종교 갈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여 평화롭게 서로 공존하는 타협의 길을 택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일견 평화를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4:12).

베드로의 이 선포는 바로 예수님을 심문하고 십자가에 못박도록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했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서 한 선포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그것도 얼마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한 그 장본인들 앞에서 베드로는 무슨 배짱으로 감히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말 한마디로 베드로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다. 이 말을 하기 전 베드로는 이미 하룻밤을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만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서 그가 한 말은 담대했고 추호도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이었다. 진리가 세상의 논리나 상황에 따라 타협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성경에서 악은 진리를 떠난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악이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으로 세상적인 의를 추구할 수도 있고 세상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 수도 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주는 혜택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아는가? 그

것이 바로 악이고 고통이라는 것을. 일찌기 하나님은 멸망해가는 남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악과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렘2:19).

바울은 지금 악을 행하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영혼에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경고한다. 환란과 고통은 죄를 지어 남들의 비난을 받거나 감옥살이를 하는 것 등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 자체가 악이요 고통이다. 남들보다 자신이 도덕적 우위에 서려고 애쓰는 모든 노력들은 고통 그 자체다.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다. 한번 마음 가운데서 욕망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욕망은 스스로를 자양분 삼아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욕망은 흔히 생각하듯 부정적 언어가 아니다. 욕망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는 ‘에피두미아’(ἐπιθυμία)다. 이 단어는 결코 부정적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았다.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목표대로 온전히 이루려는 열정도 에피두미아다. 때론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 선한 열정도 에피두미아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눅22:15).

여기에 원하다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도 에피두미아다. 성경에서 욕망이라는 단어는 중립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어떤 때는 그 열정이 선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이 되기도 하는데 그 기준은 열정이 무엇에 기반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열정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열정은 선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열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 심지어 율법을 지켜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는 열정도 죄악이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통이고 환란이라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억지로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 사역의 완전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나의 행동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결과물 때문이다. 환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평강과 안식을 누리려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인해 고통스러운가? 그것이 왜 당신을 힘들게 하는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당신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인간의 열정이 어떤 경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가진 열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지 악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 환란과 어려움(금요일)

### 오늘의 본문 (롬2:9~11)

<sup>9</sup> 환란과 어려움이 (θλίψις καὶ στενοχωρία)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ἐπὶ πᾶσαν ψυχὴν ἀνθρώπου τοῦ κατεργαζομένου τὸ κακόν,)

첫째는 유대인의 그리고 헬라인의 (Ἰουδαίου τε πρώτον καὶ Ἕλληνοῦ·)

<sup>10</sup> 그러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δόξα δὲ καὶ τιμὴ καὶ εἰρήνη)

선을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παντὶ τῷ ἐργαζομένῳ τὸ ἀγαθόν,)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Ἰουδαίῳ τε πρώτον καὶ Ἕλληνι·)

<sup>11</sup>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οὐ γὰρ ἔστιν προσωπολημψία παρὰ τῷ θεῷ.)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살아가려는 이들이 있다. 그들의 삶은 일견 선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악이다.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의를 이루어 내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 낸 의를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의를 내세우려는 사람들의 삶을 바울은 환란과 어려움으로 단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인간들이 선을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눈에 인간들이 행하는 것 중 어떤 것을 선으로 보실까? 사도 바울은 같은 로마서 3장에서 인간들 중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먼저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

“<sup>9</sup>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sup>10</sup>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sup>11</sup>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sup>12</sup>다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롬 3:9-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눈에 의인이라 인정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태어나서 한번도 죄를 짓지 않고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선을 행하는 인간들은 없다. 하나 같이 죄인이다. 사도 바울의 이 같은 선언은 “선을 행하는 모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마디로 무력화하고 만다. 결론적으로 인간들은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을 길이 전혀 없다는 말이다. 바울은 왜 이처럼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내용을 한 편지 안에 기록하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바로 뒤에 기록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절망적 선언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선을 행한다는 의미는 다르게 해석 되었어야 마땅하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인간들도 충분히 선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이다. 모든 인간들을 악한 존재로 인식하고 인간에게서 어떤 선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은 인간의 가치를 지나치

게 폄하하는 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인간들끼리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책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 선포하신 메시지를 기록한 책이다.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신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선언했다. 인간들을 죄 아래 가두어 놓은 목적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로마서 11장 32절과 33절을 읽어보자.

“<sup>32</sup>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sup>33</sup>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11:32-33).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두셨다는 말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다. 모태 신앙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평생을 지내다가 병상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매한가지다. 하나님은 인간 측에서 만들어낸 조건으로 선악을 따지는 분이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평가를 받는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그 기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내어 인간들이 보기에 어떤 하자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람이나 늘 말썽만 부리고 살아서 의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도킨개긴이다. 의를 재는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의 외에는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 말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과 그 의미가 상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인은 법 앞에 불평등하다는 주장과 뜻이 맞닿아 있다. 이 세상은 도덕과 윤리라는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한다. 세상의 기준은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린다. 반대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준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진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선하고 정의로운 삶을 산 사람도, 반대로 항상 루저처럼 못난 삶을 산 사람에게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셨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요지가 바로 그것이다.

성경의 독자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면면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의로운 바리새인들보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세리의 손을 들어 주셨다. 간음하던 여인을 데려와서 의로운 심판을 하려던 유대인들 대신에 수치심으로 얼굴조차 들지 못하는 그 여인의 손을 들어주셨다. 세리,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보낸 여인, 다섯 번이나 남편이 바뀌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비련의 사마리아 여인, 태어날 때부터 눈 멀어 거지로 살아 온 바디메오 등등...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 이쯤되면 눈치를 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동일한 의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동일한 의를 갖게 되어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다.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인간을 차별적으로 대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 율법과 죄에 대해 (토요일)

### 오늘의 본문 (롬2:12)

<sup>12</sup> 율법이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Ὅσοι γὰρ ἀνόμως ἥμαρτον,  
율법없이 멸망할 것이다 (ἀνόμως καὶ ἀπολοῦνται),  
율법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든지 (καὶ ὅσοι ἐν νόμῳ ἥμαρτον),  
율법을 통하여 정죄될 것이다. (διὰ νόμου κριθήσονται).)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울은 죄인을 율법이 없이 죄를 짓는 사람과 율법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 둘로 구분한다. 흔히들 이를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기준으로 본다. 맞는 해석이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율법없이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말은 사실 형용 모순이다. 어떤 행위가 죄로 성립되려면 반드시 그 행위를 죄로 규정하는 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같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롬7:8).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이 말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말이다. 율법은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살려내서 우리로 하여금 죄된 삶을 살고 있음을 깨우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율법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할 기준이 없다는 말이다. 정말 그럴까? 율법이 없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안심해도 되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먼저, 죄란 행위가 아니라 존재요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신학자 로버트 머홀랜드는 그의 책 ‘예수의 길에서 나를 만나다’ (The Deeper Journey)에서 죄를 만들어 내는 존재를 ‘거짓 자아’라고 했다. 그가 자신의 내면에서 쉬지 않고 죄를 생산해 내는 ‘거짓 자아’를 발견하고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젊은 시절 나는 회개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단지 회개를 내가 행한 일에 대한 유감스러운 감정 정도로 생각하였다. 나는 내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러워하면서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했다.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마침 나는 어떤 지혜로운 선생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회개는 당신이 한 일을 유감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유감스러워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거짓 자아라는 골칫거리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종교성 이면에 내 자신의 계획과 욕망과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자기 준거적 존재가 내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차츰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아무리 종교적 외양을 번지르르하게 꾸며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로버트 머홀랜드 (서원교 역), ‘예수의 길에서 나를 만나다’, (살림(2009), 33-34)).

인간은 존재 자체가 욕망을 추구하는 쫓겨난 자이다. 죄를 용서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말이다. 죄인인 우리의 존재가 변해서 오직 선한 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믿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따로 전도할 필요도 없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몰라보게 달라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모두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여전히 죄를 짓고, 크고 작은 세상살이에 아등바등대고, 여전히 고난 속에서 힘들어한다.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모습이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죄는 도적질을 하고, 남을 속이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는 등 명백하게 겉으로 드러난 죄,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죄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 사회에서 칭찬받을 일들이 도리어 죄가 될 수 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란 바로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인간들에게 생긴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선악 판단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은 인간들로 하여금 선한 것, 옳은 것, 좋은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물론 악한 것, 잘못된 것, 나쁜 것은 될 수 있는 한 버리려고 한다. 지금까지 기독교도 그렇게 가르쳐왔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 심지어 무신론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예외없이 선악 판단에서 벗어날 수 없다. 율법과 무관하게 인간들에게는 이미 선악 판단 기준이 내재하여 그것이 모든 행위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성경은 행위를 기준으로 죄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히려 행위의 근원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한다. 사실 인간 내면에 있는 선악 판단 기준은 원래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생각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선악 판단 기준을 갖게 된 것이다. 선악 판단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라면 인간이 그 기준을 갖게 된 것 자체가 탐심의 결과요 죄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억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지만 모세 율법 이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말해 율법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면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했다고 할 수 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인간의 내면에 선악 판단 기준이 심겨졌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정죄 당하고 심판 받기는 매한가지다.

이 본문을 오늘날에 적용시켜 보자.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로마 교회 내의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철저히 성경 말씀대로 살아 온 사람이나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된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동일하다는 의미다. 교회에서 배워 온 여러 지침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판단 기준으로 남을 판단해 온 사람이나 둘 다 죄인이기는 매한가지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고 정죄 당하지 않는 길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정죄하여 죄책감에 휩싸이거나 타인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 자체가 잘못된 행위여서라기 보다는 자신이든 남이든 인간이 인간을 정죄할 권한을 단 한번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는가? 자책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나오라. 로버트 머홀랜드 교수의 말처럼 죄를 회개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생각하는 회개란 무엇입니까?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당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나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